

우리말로 재창조된 옛 漢詩의 집대성

金達鎭웅의 유작 「韓國의 漢詩」 전3권

시인이자 불교학자이며, 특히 경전과 漢詩 번역에 뜻을 쏟히는 빼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月下 金達鎭웅이 지난 7일 향년 82세로 타계했다.

詩歷 60년을 헤아리는 원로시인이면서도 비교적 일반독자의 관심권 밖에 있던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80년대 들어 10여권의 주목할 만한 저·역서를 잇달아 펴내던 그의 노년의 열정이 이제 끝막음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김웅의, 마치 폭죽처럼 터뜨린 마지막 노년의 열정이 단단히 영근 유작 「韓國의 漢詩」 전3권이 이달말 민음사에서 출간된다. 4년동안의 번역작업 끝에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출판작업에 들어갔던 것인데, 김웅 사후 보듬어 만에 마지막 유작으로 빛을 보게 됐다.

개인문집 등에 묻혀있던 자료도 발굴

모두 893명 1800여수의 한시를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분류, 수록한 이 「한국의 한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1, 2권에는 한국 最古의 한시로 꼽히는 「空篋引」에서 근세 조선의 黃玿, 崔益鎰 등에 이르기까지 774명 1356수의 한시를 시대순으로 배열했고, 모두 119명에 이르는 여류시인들의 작품 350수를 따로 이 제3권에 묶었다.

이 과정에서 김달진웅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 수록작품의 선정 문제. 특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작가와 작품을 발굴,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東文選」이나 「大東詩選」 등 기왕의 이 방면 문집들이 다루지 못했던, 그동안 개인문집 등에 묻혀 있거나 대략 전체 수록작품의 30%를 이들 작품이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한시」는 그만큼 우리 한시문학의 공간을 넓히고 있다. 이 공간 속에는 비단 君王이나 사대부들 뿐 아니라, 이름없는 가객이나 위항시인, 혹은 「여류시편」의 경우 양가집 내자들이나 기생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인물들이 남긴 주옥같은 명시들이 광범하게 망라돼 있다.

아울러, 김웅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 「장황한 시는 피하고 간결하면서 서정성이 풍부한 시들을 많이 뽑았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간결한 형식 속의 응축미가 돋보이는 絶句가 많이 실려 있고, 길어야 律詩 정도가 대부분이다. 길고 복잡한 각주를 거느리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거의 배제돼 있다.

번역에 있어서도 “번역 또한 무엇보다 詩다 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작자의 原意를 잘 살린 詩여야 한다”는 김웅의 평소 신념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서투른 직역과 성급한 의역을 모두 지양함으로써, 김웅은 이 「한국의 한시」가 유려한 우리말로 재창조된 한국

고조선에서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893명 1800여수의 한시를 가려뽑아 번역한 「韓國의 漢詩」가 출간됐다. 지난 7일 타계한 金達鎭웅의 유작으로 간행된 이 「한국의 한시」는 우리 옛 한시의 방대한, 그리고 최초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시문학의 보고일 수 있도록 만든다.

“한문에 능한 이들 특유의 답답한 구투가 거의 말끔히 가셔진 현대적 해석”이라고 김웅의 한시 번역을 평하는 朴性奎교수(고려대·한문학)는 “유불선에 걸친 사상적 섭렵이 시 해석의 바탕에 수렴돼 있는데다, 한시 이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고나 사실의 인용인 用事에 특히 밝다”는 점 등을 김웅의 譯詩가 갖는 미덕으로 꼽는다.

「韓國禪詩」 등과 자매편 이취

「한국의 한시」와 함께 그 자매편을 이루는 것이 1985년과 87년 각각 열화당에서 출간됐던 「韓國禪詩」 및 「韓國現代禪詩」. 이중 앞의 책은 신라의 元曉·圓光·慧超, 고려의 義天·一然·普愚, 조선의 休靜·道安·艸衣 등 조선 시대까지의 高僧大德 38명의 선시 700편을 수록했다. 후자는 조선말기의 鏡虛스님을 비롯, 龍城·映湖·九河·滿空·龍雲·曉峰, 그리고 82년 입적한 鏡峰스님 등 9명의 선시 370편을 담고 있다.

「현대선시」 간행 당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웅은 “한국의 漢詩를 번역해 원고지 1200매 정도로 마쳤는데 이걸 책으로 낼까 망설이는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록 유작의 형태로나마 책으로 묶어져 나온 만큼, 僧·俗에 걸쳐 한국의 대표



김달진웅이 80년대 이후 펴낸 창작시집과 漢詩 번역서들.

적 한시들이 김웅의 번역으로 집대성을 보게 된 셈이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인이 쓴 옛 한시가 김웅에 의해 모두 추려져서 국역된 것이다.

그러나, 김웅이 ‘한국’한시만을 번역한 것은 아니다. 중국문학의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지칭되는 唐詩 700여편을 가려뽑아 번역한 「唐詩全書」(민음사)를 1987년에 펴냈고, 이듬해엔 北傳장경의 대표적 부처일대기인 「佛所行讚」의 번역본 「붓다차리타」(고려원)을 펴내기도 했다. 그밖에도 서산대사 선시집 「큰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비롯 「金剛三昧經論」 「보조국사전서」 「禪詩와 함께 엮은 莊子」 등을 최근 몇년 사이 잇달아 펴냈는데, 이처럼 80년대 이후 김달진웅의 저술활동은 단순히 ‘노익장’이란 말로 가늠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원래의 본업이었던 시인으로서의 활동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다. 「金達鎭鎭詩全集」의 일환으로 1983년과 84년 각각 「올빼미의 노래」(제1권), 「큰 연꽃 한송이 피기까지」(제2권)를 상재했고, 87년에는 사위인 崔東鎬교수(고려대·국문학)를 비롯해 李聖善, 조정권 등의 시인과 함께 4인공동시집 「샘물 속에 바다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웅의 시는 흔히 고전적 시세계의 원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김달진전집」을 편집했던 문학평론가 박덕규씨는 「관조적 사물시 혹은 자연시」로 조심스레 명명한다. “자연 속에 시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김달진시의 대체적 경향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僧俗의 세계 넘나들며 譯經사업에 주력

190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김달진웅이

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29년. 「文藝公論」에 梁柱東씨의 선고로 「雜詠」등 몇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한편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불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고향의 계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무렵이다. 당시의 사정을 김웅은 한 에세이에서 “어느날 밤 찢어진 벽지 사이의 초벌 신문지에서 뚜렷이 보이는 「佛」자를 발견하는 순간 섬광처럼 마음 속의 무엇인가에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이 자극 이후 곧바로 출분, 금강산 유점사에서의 승려생활, 불교전문학교에서의 수학 등을 거쳐 서정주 등과 「詩人部落」 동인을 결성하고 1940년엔 첫시집 「青柿」를 펴낸다. 해방 후에는 시전문지 「竹筍」 동인, 기자생활을 거쳐 낙향하여 교육계에 몸담는데, 1962년부터 그가 ‘내 인생의 전기’라 표현하는 동국대 東國譯經院에서의 번역사업에 20여년간 몰두한다. 최동호교수의 표현대로 “문단에서 작고한 문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동안” 매일 2~30매씩 유현한 불교의 세계를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웅의 진면목은 이 기간의 불경번역에 가장 잘 발휘됐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붓물 터지듯 쏟아낸 그의 저술중 상당수는 이때 불경을 번역하며 얻은 부수적 성과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김웅은 이제 가고 없다. “순간순간 삶을 만나고 있듯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죽음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던 그의 말을 되새기며, 한시 및 경전에 관한 한 우리 당대의 가장 탁월했던 번역가의 모습을 그려본다.

—강철주 기자